韓中日 불교도들 "세계평화 위한 정진" 다짐

제24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일본 일련종 총본산 구원사 개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
한국불교 대표단 80여 명 참석
10월 30일 세계평화기원법회 봉행
인류 화합 위한 불교 진일보 발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한 · 중 · 일 불교도들이 일본 구원사에서 불교우호교류회의를 개최하고, 세계평화를 위한 정진을 다짐했다.

한·중·일 불교도들이 한데 모여 세계평화를 위한 정진을 다짐하는 법석을 열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는 10월 29~30일 일본 야마나시현 일련종 총본산 신연산 구원사에서 열린 '제24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일본대회' 한국대표로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는 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단장으로 부회장 상진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등 협회 회원 종단 중 19개 종단에서 76명이 참석했다. 주최 측인 일본에서는 이사장 타케 카쿠초 스님 등 대표단 100여 명과 중국 대표단으로 회장 연각 스님 등 80여 명 등 총 260여 명이 참석했다.

10월 30일 봉행된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국가별 기원법회에서 진우 스님은 세계평화 메시지를 통해 "불교 문화교류야말로 공존과 상생의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을 언급한 진우 스님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제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해내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진리의 자리가 될 것"이라며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을 만드는 지혜가 불교에 있으며, 인류 공영의 해법도 불교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했다. 이어 관점을 달리해 연기적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것을 강조했다. 스님은 "인류의 평화와 행복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과 의지에서 시작되며, 그 결과는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으로 오늘날 인류가 불행의 문턱을 넘나드는 이유는 바로 우리 스스로 그 위기를 자초했기 때문"이라며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인과 따라, 연기 따라 흘러간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되새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3국의 불교가 인류화합과 세계 평화를 위해 더욱 진일보 하자"고 발원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공영사회 구축에 있어 불교 정신의 가능성'을 주제로 학술강연회도 진행됐다.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관음종 부원장 도각 스님이 '한중일 삼국이 함께하는 미래 구상'을, 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스님이 '공영사회 구현을 위한 불교 정의 탐색과 실천'을 주제로 발제했다.

앞서 10월 29일 열린 삼국교류위원회의에서는 25차 대회를 논의하기 위한 예비회의를 내년 3월 하순 개최키로 했다. 본 대회는 30주년을 기념하며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서로 협력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면면히 이어오는 불법의 자비심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 맞는 형태로 사람들 마음에 다가서겠다"면서 "세계 평화와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는 1995년 제1회 중국 북경대회를 시작으로 3국의 불교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발전과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

태고 보우 원융회통 정신, 문화와 만나다

태고종, '제13회 태고문화축제'
10월 27일 일산문화광장서 개최
예수재 설행, 문화공연 등 진행



태고 보우 국사의 원융회통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문화축제가 열렸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0월 27일 일산문화광장에서 '제13회 태고문화축제'를 개최했다.〈사진〉

태고문화축제는 고려 말 분열됐던 제종을 통합했던 태고 보우 국사의 원융회통 정신을 우리 사회에 구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됐으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행사로 진행하는 등 꾸준히 개최돼 왔다.

'원융과 회통의 소리,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축제에는 태고종 연합합창단과 전법사회, 이상밴드의 공연으로 막이 올랐다. 특히 태고종이 자랑하는 불교의례·의식인 청련사 생전예수재와 현대의 문화공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문화축제여서 광장을 찾은 1000여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예수재는 법회의 주인공인 부처님을 예수도량 중정으로 모시는 '괘불이운'과 지전을 명부에서 쓸 수 있는 재화로 만드는 '조전점안' 등이 이뤄졌으며, 의식을 통해 국태민안과 전생 업장 소멸을 발원했다. 예수재 후에는 가수 장하은, 송우주, 김중연, 진욱 등의 공연이 진행됐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태고문화축제는 1700년 한국불교와 태고종 종조로 추앙받고 계시는 태고 보우 원증 국사의 원융사상을 문화축제를 통해 화합으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뜻 깊은 행사"라며 "오늘 축제를 계기로 태고 보우 국사의 원융 회통 정신이 높이 선양 되길 바란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민과 고양시민, 국민이 함께 하는 통합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발원했다.

한편,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이날 축제에서 고양시에 자비의 쌀 1000kg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가수 진욱 팬카페 '실크로드'가 태고종 발전기금 300만원을 기부했다.

신중일 기자

"10·27법난, 진상규명·피해자 명예 회복으로 치유해야"

10월 27일, 제44주년 추념문화제
진우 스님 "법난과제 해결에 최선"



조계종 총무원은 10월 27일 서울 봉은사에서 '제44주년 10 · 27법난 추념문화제'를 봉행했다.

1980년 10월, 신군부가 계엄포고령 위반자와 불순분자 검거를 구실로 전국의 스님과 불교계 인사들을 강제 연행, 고문과 폭력을 자행한 10·27법난이 발발했다. 올해 44주년을 맞은 10·27법난의 추념문화제가 서울 봉은사에서 개최돼 진실 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기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27일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에서 '제44주년 10·27법난 추념문화제'를 봉행했다. 봉은사는 '10·27법난 기념관'이 건립 예정된 곳이다.

추념문화제는 1부 추념법회와 2부 추념문화공연으로 나눠 진행됐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이 대독한 추념사를 통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27법난은 단지 과거의 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역사의 상처"라며 "정부는 종단과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될 때까지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우 스님은 "종단은 10·27법난으로 불교계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노력해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이뤄냈다"며 "뒤이어 봉은사에 불교계와 피해자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예우 공간 '10·27법난 기념관' 건립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장 성화 스님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사회를 도운 불교계가 겪은 10·27법난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종단은 앞으로도 44년 전 그날의 진실을 알리고 명예회복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유사한 국가폭력이 되풀이되지 않게 제도적 정비, 10·27법난 진상 규명을 위한 사업 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10·27법난피해자모임회장 원행 대종사는 10·27법난의 진실 규명이 불교와 사회 발전의 자양분이 되길 바라며 10·27법난 피해자들을 대표해 △정부의 공식적 대국민 사과 △지속가능한 피해자 개인 배상 방안 마련 △10·27법난 관련 서류 국민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어 원행 대종사는 "역사의 법정엔 시효가 없으며 진상규명만큼 완전한 자유는 없다"며 "불교와 국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아픔과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후학들의 과제임을 잊지 말자"고 전했다.

김가령 기자

영규대사와 800의승, 호국불교 가치 조명

불교사회연구소 학술세미나
영규대사가 남긴 호국 유산
현대적 계승 방안 심층 탐구



임진왜란 당시 청주성과 금산 전투에서 활약한 영규 대사와 800명의 의승이 역사 속에서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학술의 장이 마련됐다.〈사진〉

조계종 미래본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 스님)는 10월 31일 전법회관에서 학술세미나를 열고 의승군의 호국불교적 의의와 그 현대적 계승 방안을 탐구했다. 10월 24일 진행된 1차 학술세미나에 이어 2차 세미나는 사적을 중심으로 호국불교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계승할 방안을 조명했다.

첫 발표에서 김상영 동국대 명예교수는 '임진왜란 시기 의승 활동과 기허 영규'를 주제로 불교계가 임진왜란 속에서 어떻게 호국불교의 가치를 실천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철헌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는 '기허영규의 의승군 활동'을 주제로, 청주성과 금산 전투에서 영규대사와 의승군이 보여준 활약을 사료로 생생하게 복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영규대사와 800의승 현양 사업의 과제와 전망'을 발표하며 영규 대사와 의승들의 정신을 현대사회에 어떻게 계승할지에 대한 구체적 제언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연말에 논문집으로 발간되어 전국 주요 도서관과 연구소에 배포될 예정이다.

정현선 기자

2024 팔관회 Turn Toward Busan 참여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2024 팔관회는 Turn Toward Busan 행사에 함께합니다.
부산지역 전 사찰이 신성한 불음(佛音)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왕생극락 발원에 동참 바랍니다.

2024년 11월 11일 (월) 오전 11시 부산지역 전 사찰

- 사부대중이 모여 1분간 범종, 죽비, 목탁 등 법구(法具) 11타(打)
- 부처님의 법음(法音)으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왕생극락 발원하는 추모 묵념

동참 방법
1. 2024년 11월 11일 오전 11시 범종, 죽비, 목탁 등의 법구를 이용하여 1분 동안 11타(打)
2. 경내 사부대중은 UN기념공원을 향해 묵념
3. 행사장면을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하여 부산불교연합회로 전송

영상전달 방법 문의 ☎ 051-867-0501
이메일 전송 story12311@naver.com ※ 지역, 사찰명 표기



턴 투워드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Turn Toward Busan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전사자들이 안치되어 있는 부산유엔기념공원을 향해 한국 현지 시각에 맞추어 동시에 묵념 및 추모행사를 진행하여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고 그들을 추모하는 행사이다.

주최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주관 2024 팔관회봉행위원회
후원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